

유·불 회통 시도 理學·心學 출현에 결정적 작용

<19> 심성론(心性論)의 불(佛)·유(儒) 회통론과 거시들(3)

불교의 중국 전래 이래 유학(儒學)은 불교의 영향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당대(唐代)의 유학은 여전히 불교와 비교할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 당대의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은 양숙(梁肅), 한유(韓愈), 이고(李翱), 류종원(柳宗元), 류우석(劉禹錫)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철저한 배불론자인 한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성론에 있어 불교의 학설을 받아들였다.

한유는 <대학(大學)>의 이른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세(入世)'를 제창해 '출세(出世)' 지향적인 불교를 비판했다. 양숙과 이고 거시는 유학자 신분으로 모두 불교의 '출세주의'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불교의 '이름(理理)'에 깊이 들어와 심성론에 있어서 유불회통(佛會通)을 이뤘다. 류종원·류우석 거시는 불교적 정서로 불교의 심성론을 접수했고, '통합유불(統合儒佛)'의 도(道)를 제창한 인물들이다. 이들을 역대 불교계는 전형적인 사대부(士大夫) 거사로 평가했다.

류종원(773-819)은 자(字)가 자후(子厚)이고, 하

불교와 관련된 수많은 시문(詩文)을 지었다. 거시는 <송침상인남유서(送琛上人南游序)>에서 "법은 반야(般若)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 경전은 <열반경(涅槃經)>보다 지극한 것이 없다. 세상의 뛰어난 사람들이 불법을 알고자 할 때 이 경론을 택하지 않는다면 어그러질 것이다"라고 한다. 이로부터 보자면 거시는 반야학설과 <열반경>을 극도로 찬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시는 당시 수많은 종파 가운데 천태종(天台宗)을 추종했다. 특히 천태종 무성(無姓) 대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무성 대사 입적 후에는 그의 비문(碑文)을 찬술했다.

거시는 불법을 공부하는 과정과 여러 고승들과의 교류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유학(儒學)이 서로 통한다고 봤다. 거시는 <송호초서(送浩初序)>에서 "불교는 참으로 배척할 수 없다. 자주 <주역(周易)>과 <논어(論語)>와 합치돼 즐겁지만, 그 성정(性情)이 크므로 공자(孔子)와 다른 도(道)가 아니다... 내가 불법에서 취한 바는 <주역>과 <논어>와 분명하게 합치돼 비록 성인(聖人)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유의 배불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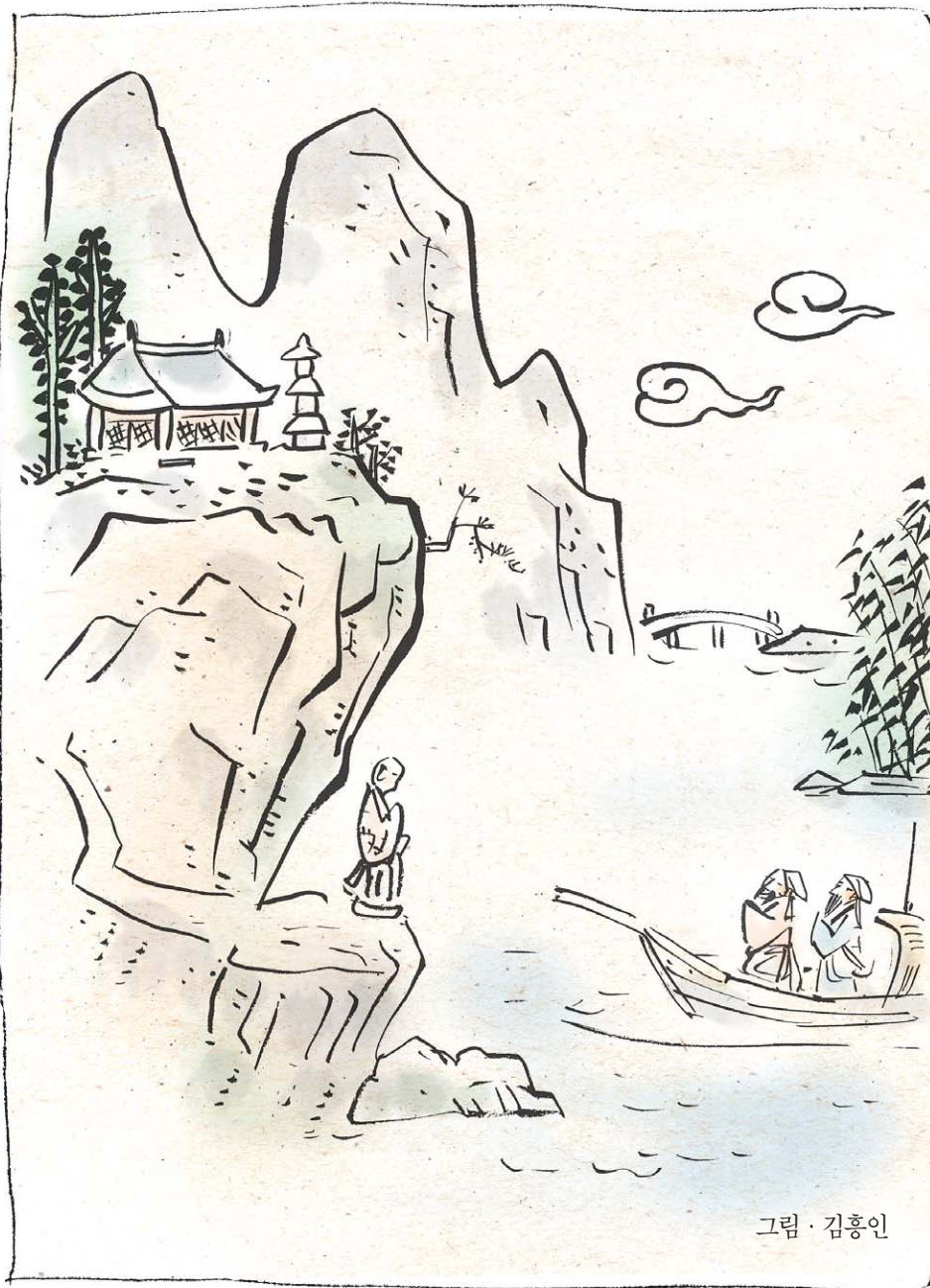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류우석(772-842) 거시는 자(字)가 목덕(夢得)으로 중산무극(中山無極; 현 河北省에 속해있음)사람이다. 거시는 류종원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세상에서 '류유지교(柳劉之交)'라는 말이 '관포지교(管鮑之交)'와 유사한 말로 유행할 정도였다. 정치적으로 류종원과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만년에 비교적 순탄했다. 사상에 있어 거시는 류종원과 함께 불교와 유학을 회통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거시는 류종원 거사와 다르게 선종(禪宗)에 깊이 매료돼 주로 선사(禪師)들과 자주 교류했고, 거사의 유불회통은 주로 선종의 심성론을 유학(儒學)과 결합시키고자 했다.

거시는 특히 육조 혜능 선사(慧能禪師)와 하택신화(荷澤神會) 선사의 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거시는 혜

능-신화로 이어지는 선맥(禪脈)의 핵심적인 사상을 '돈오(頓悟)'로 파악했다. 류우석 거시는 문집에서 혜능의 사상을 평해 "한 번 돈오(頓悟)를 말하니, 초지(初心)를 밟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지'는 대승보살의 수행계위의 첫 단계로서 초지로부터 심지에 이르는 차례적 수행을 시찰하는 교화에 '돈오'를 강조해 그 '수고로움(勞)'을 벗어났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거시는 혜능 선사의 '무소득(無所得)'에 대한 평가를 '얻음이 없는 얻음(無得而得)'이라 귀결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거사의 평가는 이후 선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

거시는 류종원 거사와 마찬가지로 혜능 선사 비문(碑文)을 찬술했다. 이를 흔히 '육조대감산사제2비'

라고 한다. 거시는 비문에서 "부처님께서 멸한 후, 오백세(五百歲) 달마(達摩)가 법을 지니고 중국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니, 신 새벽에 비로소 밝은 태양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찬탄했다. 이로부터 거사가 선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거사에게는 규봉종밀(圭峯宗密) 선사에게 보내는 '송종밀상인귀남산조당사인예하남백시랑(送宗密上人歸南山草堂寺因詣河南尹白侍郎)'이라는 긴 제목의 시가 있다.

숙세(宿世)에 익혀 얻은 혜근(慧根), 다문제일(多聞第一)이 말을 잊고, 칠조(七祖)에서 전한 심인(心印), 삼승(三乘) 방편은 필요치 않네. 동쪽 푸른 바다에서 옛 흔적을 찾고, 서쪽 붉은 누각으로 돌아가 숙세의 일을 잊네. 하남(河南) 백윤(白尹) 큰 시주(施主), 진경(真經)을 대하여 잘 세기십시오.

이 시에서 '칠조(七祖)'는 바로 하택신화 선사를 가리킨다. 류 거사가 선종의 참다운 법맥을 '혜능-신화-종밀'로 설정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관통례(止觀統例)>의 저자인 양숙 거사는 천태종의 심성론과 유학의 심성이론을 결합시키려 노력했고, 또한 이고 거사는 유명한 <복성서(復性書)>에서 선종의 '명심견성(明心見性)'과 유학의 심성론을 결합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양숙과 이고 거사는 여전히 유학자의 입장을 견지해 불교의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반해 류종원 거사는 그대로 불교인의 입장에서 한유의 불교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류종원과 친구였던 류우석 거사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류종원과 양숙은 천태종의 사상에 매료돼 있었고, 이고와 류우석은 선종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불교가 천태종과 선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까닭도 존재한다.

당대(唐代)에서 유학이 뛰어난 거시들은 심성론에 있어 불교와 유학을 결합시키려 시도했다. 이는 전체적인 중국사상에 있어서 중대한 사상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이들이 시도한 유불회통은 송·명대에 이학(理學)과 심학(心學)의 출현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주돈이(周敦頤)의 '무욕고정(無欲故靜)'의 학설은 선종의 '이상(理想)' '무념(無念)'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보이고, 장재(張載)의 '천지지지성(天地之性)' '민포물어(民胞物與)'의 사상은 불교의 '진여불성(眞如佛性)' '만법유심(萬法唯心)'과 배대할 수 있고, 심지어 표면적으로 불교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 주희(朱熹)의 성리학(性理學)조차도 '결은 유학이지만 내용은 불교[表儒內釋]'라는 평가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이들 네 거사의 작용은 평가할 수 있듯, 또한 이로부터 중국 거시불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통합유불'의 도 제창... 전형적인 사대부 거사

류종원 거사 천태종 찬탄, 류우석 거사 선종에 매료

동(河東; 현제 山西省 永濟市)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류하동(柳河東)으로도 칭한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문장에 능했다. 진사(進士)에 급제한지 3년 만에 남전위(藍田尉)에 올랐고, 감찰어사(監察御史),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郎) 등의 고위직을 역임했다. 정원(貞元) 21년(805)에 류우석 거사와 함께 왕승(王丞)·왕속문(王淑文)으로 대표되는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했다가 실패했다. 이후 영주(永州)자사로 좌천됐다. 다시 류주(柳州)자사로 좌천돼 입지에서 50세를 못 넘기고 객사했다. 거시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에 손꼽힐 정도로 뛰어난 문장가였고, 현존하는 작품이 600여 편이 넘는다. 후인들이 그를 모아 45권 <류하동집(柳河東集)>을 출간했다.

문집에서 거시는 스스로 "나는 어려서부터 불교를 좋아했다. 불도(佛道)를 구하기를 30년. 세상에 불교 교설에 능통한 자가 드물다고 하지만, 영릉(零陵)에서 나는 홀로 도를 얻었노라"고 말했다.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길지 않은 그의 일생동안 수많은 고승들과 교류했으며, 그를 통해

답긴 편지를 읽고 찬술한 것으로, 배불의 불가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거시는 육조 혜능 선사(慧能禪師)의 비명(碑銘)을 찬술했는데, <조계대감산사비(曹溪大鑑禪師碑)>에서 불교와 유학의 회통을 여실히 보였다. <조계대감산사비(曹溪大鑑禪師碑)>에서 "그 도(道)는 무위(無爲)로써 함이 있음을 삼고, 공동(空洞)으로 실질(實)을 삼았으며, 광대하고 방랑하지 않음을 귀지(歸旨)로 삼았다. 그 가르침은 시작을 성선(性善)하고, 끝도 성선으로 하며, 경작하지 않아도 본래 깨끗한 것(靜)이다. <중략> 그 설(說)을 갖춰 이제 천하에 펼치니, 무릇 선(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근본은 모두 조계(曹溪)인 것이다"라고 적었다. 여기에서 "경작하지 않아도 본래 깨끗한 것(靜)"이라는 문구는 <예기(禮記)>의 "사람이 태어나서 깨끗함(靜)은 하늘의 성품이다(人生而靜, 天之性也)"라고 하는 사상과 통하는 바가 있다. 사실상 그의 문집에 실린 거의 모든 작품들이 불교와 유학을 회통시키는 내용과 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인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울주
노해운	1972년생	173	고졸	C E O	대전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구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전문	구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원주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경기교양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부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전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이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대전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대졸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자영업	인천
정지영	1974년생	174	고졸	회사원	수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졸	금융직	울주
김종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중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산	1970년생	170	방통대졸	공무원	서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주시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대졸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졸	회사원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홍성현	1968년생	167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졸	회사원	울산
배병진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부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울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사업자	서울
권순수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사업자	전주시
문운중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졸	회사원	전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계	경기남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회계	충남
오세훈	1975년생	175	고졸	회계	경기도
박현득	1964년생	163	고졸	회계	경기도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계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졸	회계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계	대구시
박종우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건설사	충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조공	경기도
김진원	1969년생	170	고졸	회계	충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계	충북
서정은	1971년생	170	고졸	회계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경주시
박찬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견공사	강원도
모용우	1973년생	177	대학원	교육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5	대학	영업	충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충남
김진혁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현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정일호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박선준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인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학	농업	충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충북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충북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학원강사	충북
강중남	1973년생	162	고졸	회사원	충북
송준희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북
김태석	1973년생	170	고졸	교육	충북
장현제	1967년생	175	고졸	회사원	충북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공사	충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충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

현대불교신문 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